



포항공대내에 위치한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새로운 실험에 돌입했다. 지난 1998년 ‘분수양자홀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 스탠퍼드대 로버트 러플린(54세) 교수를 아·태이론물리센터의 ‘히딩크 감독’으로 지목한 것이다. 러플린 교수는 앞으로 3년간 아·태이론물리센터의 소장직을 맡을 뿐 아니라 포항공대의 석학교수로도 활동하게 된다.

이날 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기자 간담회 참석을 위해 기자실에 들어선 러플린 교수는 다소 사색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1972년 반전운동에 참여했을 당시의 고뇌의 흔적이 잠시 엿보이면서도 무엇보다 강인한 인상을 감출 수 없었다. 실제 러플린 교수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근무하던 벨 연구소에서 일 자리를 잃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이론물리학자로서는 정년이 5년이나 지났다’는 32세가 되어서야 노벨상 수상의 계기가 된 논문을 발표했다.

러플린 교수를 소개한 과기부 구분제 기초인력국장은 “부산아시안게임 기간 중 노벨 수상자 초청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일곱번이나 방문한 대표적인 지한파이다. 노벨상 수상 이전부터 아·태이론물리센터, 포항공대, 고등과학원 등과 인연을 맺고 과학영재 육성과 범국민적 기초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단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범국민적 과학마인드 확산에 앞장설 것”

Interview

▶ 소장직을 맡게 된 소감은

아·태이론물리센터에서 일하게 될 경험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의 하나가 발전하고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크기의 국토이다.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장 민주화된 나라라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과학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모든 세계인들이 사고의 모드를 발명하기 위해

글_심재우 중앙일보기자 jwshim@joongang.co.kr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 센터에서 센터의 친구들과 함께 이같은 문제를 짚어나가고 싶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작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방향선회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앞으로 아·태이론물리센터를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인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할 내용이 바로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말할 수 있

로버트 러플린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다. 이론물리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과학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과 대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금이 쓰이길 바라는 곳은 가치의 창조이다. 과학의 요건은 가치를 이해하는 일이다. 가끔은 가치가 새로운 발명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태어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젊은 사람들의 독립성이다. 이것은 경제의 원동력이 된다. 독립성과 자유는 연관돼 있다. 가치는 모험을 하게 만든다. 복잡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새로운 혁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화라는 것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사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아·태센터와 하고 싶은 일도 얻고자 하는 것, 사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 빠른 시일내 진행할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인터넷 출판에 관심이 많다. 관심의 초점은 우수한 저작물이다. 인터넷 출판을 통해 바탕을 깔아주고 기술적인 지식과 일반인들의 지식을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우수한 저작물은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들어와 클릭해서 보는지로 판단될 것이다. 저작물은 두개의 언어로 쓰여진다. 영어와 한국어다. 아·태에는 10개 회원국이 있는데 회원국에서 똑같은 일이 진행될 것이다.

▶ 임기내 국내에 얼마나 체류할 계획인가

계약에 의하면 매년 한달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정답은 그보다 훨씬 더 길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일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내가 받은 노벨상을 활용하겠다.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 내가 할 일은 이 친구들을 돕는 일이다. 센터의 실질적인 일은 한국 친구들이 할 것이다. 나는 최소한의 일을 맡겠다.

▶ 한국의 '사이언스 코리아' 라는 과학문화 확산운동에 참여할 계획인가

그렇다. 하지만 사이언스 코리아보다 한단계가 더 높을 것이다. 우리는 일반 대중과 얘기하면서 과학관련 저작물이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결과물은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교수들이 갖게 될 것이다. ①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지난 1997년 아·태지역 10개 국가들(한국·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호주)이 유럽의 국제이론물리센터(CTP)를 모델로 설립됐다. 아·태지역 이론물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학술교류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다. 민간 국제기구 성격의 재단법인이다. 초기에는 서울 흥릉에 위치한 고등과학원에 자리를 잡았으나, 2001년 8월 지금의 포항공대내로 동지를 옮겼다.

이번에 선임된 로버트 러플린 교수는 제2대 소장이다. 러플린 교수를 포함해 대만의 유안 리, 미국의 레온 레더만, 덴마크의 벤 모델슨, 일본의 고시바 마사토시 등 5명의 노벨 화학·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소장과 이사, 과학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이사회는 10개 회원국 주요 과학기술 인사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아·태이론물리센터가 러플린 교수를 소장으로 선임한 것은 국제 과학커뮤니케이션기구의 선구적인 모델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물리학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태이론물리센터는 러플린 교수의 비전에 따라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선도 ▶아·태 우수 과학자 네트워크와 대중·산업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접목 ▶아·태 과학기술 국제협력 허브로의 발전 ▶국가균형발전 공헌 등의 목표를 세웠다.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아·태 석학 포럼, 우수 과학커뮤니케이터 육성, 과학자 내부의 고급 과학저술 콘텐츠 창출 지원, 온라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캐나다와 미국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고 포항 '소재밸리'의 핵심기관인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학술협력, APEC·동북아·아세안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